

화행 수행과 화행 전달의 상호 주관성

유 제 호

1. 도 입

언어 현상에 관련한 대상 인식의 수준에서 상호 주관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화행을 중심으로 언어 현상 전반에 작용하는 상호 주관성(또는 상호 주체성)을 재확인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포괄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이 같은 출발점과 목표에 이데올로기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비난이 예상되지만,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그렇듯이 언어학에 있어서도 이데올로기적 성격의 대립과 선택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 필자는 최근에 인문사회과학 여러 분야에서 확인되는 ‘인식론적 전환,’ 특히 ‘언어적 전환’을 거꾸로 언어학에 접목시키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상호 작용의 수준에서 보면 언어 활동의 기본 단위는——단어 또는 언표가 아니라——차라리 화행이다. 그리고 화행은 상호 작용 현장에서 당사자들간에 수행되는 기본 행위일 뿐더러, 어떤 양상으로든 사후 전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두 국면을 동시에 고찰하는 것이 화행에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사회적

합의를 구명할 수 있는 지름길로 여겨진다. 이 같은 인식 아래 화행의 수행 및 전달을 서로 연관시켜 고찰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화행의 본질을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달화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2. 상호 주관성

필자가 볼 때 현대 언어학의 시급한 과제는 그 대상인 언어 현상을 스스로 축소, 왜곡시키는 역설적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구조주의 언어학에 뒤이어 변형생성문법도 그와 같은 한계와 위험을 안고 있다. 나아가서, 구조주의 언어학과 변형생성문법이 이른바 ‘과학’을 내세워 언어 현상을 문장 수준의 구조적 기술이나 가설적 형식화로 환원시키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이데올로기의 틀에 속한다. 그것들이 대상 인식과 접근 방법에 있어 객관주의, 전체주의,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깔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그 같은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에 가담하기 때문이다.

한편 비교적 최근에 언어학 주변에 확립된 언술 행위론, 화행론, 화용론, 담화 분석, 회화 분석, 사회언어학 등등 여러 갈래의 새로운 이론들도 방금 말한 이데올로기적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대부분이 언어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래서 언어학 자체의 변용에 해당할 뿐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요컨대 언어 현상에 관련한 좀더 높은 층위에서의 인식론적 전환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¹⁾ 필자가 보기에 이 같은

1) 필자에게는 L. Wittgenstein의 후기 이론에서 ‘언어 게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회복된 ‘현실주의적’ 관점이 J. L. Austin의 화행론을 거치면서 오히려 퇴색한 것으로 보인다. J. Searle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인했듯이, 사회적 상호 작용 수준의 화행의 ‘현실적인’ 본질은 철학이 아니라 사회학의 소관이라고 보는 철학자들의 기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최근 인문사회과학 여러 분야에서 공인되고 있는 상호 주관성 개념의 합리적인 수용이다. 이 같은 인식 아래 필자가 주목한 몇 가지 관련 이론들을 압축해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회-심리-언어학적 관점에서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동시에 거부한 바흐친 M. Bakhtine이 상호 주관성 개념의 선구자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 개념은 역시 그가 제시한 복수 언어성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²⁾ 필자가 볼 때 이 두 개념들은 수사와 과학 문체론 분야에서——그리고 문학 텍스트에 반영된 작가들의 담론들을 통해——명맥을 이어온 애매성의 신화 및 다원적 언어관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 언어 활동이 그 내용에 있어 애매하고 그 전반에 걸쳐 복수적이라면, 언어 현상 전반에 걸쳐 상호 주관적(또는 상호 주체적) 성격의 교감 내지는 협상이 전제되지 않을 수 없다.

구조주의 시학과 해석학의 연장선에서 확립된 여러 갈래의 수용 미학도 대체로 상호 주관성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특히 이저 W. Iser의 '영향미학'은 독자 개별적인 수용에 작용하는 자의성과 주관성을 배제함으로써 철두철미하게 상호 주관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그 결과 거기에서는 무엇보다도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 작용이 강조된다.³⁾ 나아가서 영향미학적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 안의 허구를 대상으로 하는 독자의 '기대 지평 Erwartungshorizont'

입장에서 이 같은 한계가 생겨난다. 거기에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이 상당 정도 관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2) 이 두 개념들이 J. Kristeva를 비롯한 기호학자들에게서 '상호 텍스트성'으로, 일부 사회언어학자들에게서 '상호 언어성'으로, 일부 인류학자들에게서 '상호 문화성'으로, 담화 분석 분야에서는 '상호 담화성'으로, 그리고 O. Ducrot 주변의 화용론에서는 '다성성'으로 계승 발전되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일이다.
- 3) W. Iser의 영향미학의 입장에서 보면 H. R. Jauf의 수용미학은 독자 중심의 주관주의에 토대하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수용미학이 다루는 '수용사'도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상호 주관성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과 독자가 거기에 끌어들이는 현실 세계상의 '기대 지평' 간의 상호 작용이 독서 행위로 이해된다. 각종 상호 작용을 이렇게 상호 주관성의 다차원적인 중첩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영향미학의 핵심이다.

미드 G. H. Mead의 상징적 상호 작용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민속 방법론과 미시사회학 분야의 핵심 개념들인 갈등, 협상, 전략, 영토, 체면 등등도 상호 주관성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사실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전적으로 구속하는 제도나 규범이 없다. 당사자들이 의식하는 상황 요인들과 대인성(對人性)에 의거하여, 그리고 상호 주관적(또는 상호 주체적) 성격의 갈등 및 타협의 양상 아래, 상호 작용이 개시되고 진행되고 종결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같은 상호 주관성 때문에 정태적 수준의 모든 제도, 규범이 동태적 수준에서는 상호 제도성, 상호 규범성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하임즈 D. Hymes를 축으로 확립된 커뮤니케이션민속학에서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단일 언어 체계 개념이나 변형생성문법 체계의 보편적 언어관에 맞서 다원적 언어관을 주창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개인 문체론 학자들에 의해 소쉬르 F. Saussure식의 언어 체계 개념이 '과학적 허구'로 격하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촘스키 N. Chomsky식의 언어 능력 개념이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다원적 언어관을 취하는 경우, 차라리 커뮤니케이션(또는 상호 작용)의 능력이 우월시되고, 다기한 문체 현상과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성격의 '하위 코드들'에 더 큰 관심이 부여된다. 그리고 이 같은 복수 언어성은, 바흐친의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상호 주관성을 전제한다.

최근에 가장 높은 층위에서 상호 주관성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 여러 갈래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들이다. 그 중에서도 언어 현상에 가장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마 탈구조주의적 노선에

서 사회철학의 ‘언어적 전환’을 표방하고 있는 료타르J.-F. Lyotard의 이론일 것이다. 그의 이론의 핵심은 “플라톤 이후 서구 철학에서 말이 회색 베일을 가지고 감각적인 것에 덮여있는 그 음영”(1971, 11)을 벗겨내는 데 있다. 그가 볼 때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담론을 통해 있는 그대로 재현될 수 없다. 객관화된 개념과 그것에 의존하는 ‘담론 *discours*’에 앞서, 감각에 호소하는 ‘형상 *figure*’이 훨씬 더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장을 언어 현상에 결부시키자면, 실재에 있어 언어 활동이 담론에 의한 재현 가능성을 부정하고 담론의 규제를 거부하는 ‘형상’에 의해 주도된다는,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언어 활동 전반에 상호 주관성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인문사회과학 여러 다른 분야들에서 상호 주관성에 토대한 ‘인식론적 단절’이 확인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외 없이 ‘언어적 전환’이 수반된다. 인간 실존 및 사회 현상을 해명하고 전망하는 데 있어 언어 쪽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 각성이 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언어’가 현대 언어학의 존립 근거인 단일 언어 체계 또는 선형적 언어 능력과 거리가 멀거나 아예 상반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상호 주관성 개념에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언어 현상에 관련한 대상 인식과 접근 방법에 있어서도 이데올로기적 수준의 대립과 선택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 이데올로기가 발휘하는 설득력이다. 따라서, 보다 높은 층위의 여러 분야들이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상호 주관성을 앞세워 ‘언어적 전환’을 꾀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이제 언어학과 언어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접 학문들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상 인식 및 접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화행의 수행과 교환

화행은 상호 주관성에 토대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동시에, 거꾸로 상호 주관성을 가장 설득력 있게 확인시켜주는 언어 현상이기도 하다. 우선 화행은 사회 과정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적 상호 작용의 기본 단위이다. 그리고 미시사회학자 고프먼 E. Goffman의 비유 그대로, 언어 활동 자체가 일종의 ‘냉전’이고 그 기본 단위인 화행은 냉전의 당사자들이 벌이는 ‘주먹질’이나 ‘사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 언어학 또는 언어철학의 연장선에서 화행론 또는 화용론에 뿌리내린 화행 개념이 현실주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I. 화행의 원초성 및 복합성

화행은 단순히 특정 명제(사태)에 부가되거나 언표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다. 화행이 오히려 특정 명제(사태)의 언표화(기표화) 동기로 작용한다. 나아가서 언표의 일차적인 존재 이유가 바로 화행이다.⁴⁾ 그리고 명제의 진리치 자체가 화행의 성격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적어도 상호 작용상의 위계에 있어서는

4) 갑이 을을 상대로 “애, 철수가 교통 사고를 당했대!”라는 언표를 발화했다고 치자. (여기에서 * 표시는 구두점이 화행의 복합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왜 이 언표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물론 갑이 그것을 발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갑이 위의 언표를 발화했는가? 그것은 을을 상대로 하는 갑의 ‘행위적 의향’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당하다-과거(철수, 교통 사고)’라는 명제(사태)를 갑이 확실히 알고 있더라도, 그가 을에게 그것을 꼭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갑/을/철수간의 통인성(通人性), 갑/을간의 대인성(對人性)에 토대한 갑측에서의 ‘행위적 의향’ 없이는 위 언표가 발화될 수 없고 따라서 존재할 수도 없다.

화행이 명제보다 우월하다.

화행은 객관적으로 개념화되거나 ‘담론’으로 재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화행을 지배하는 것은 차라리 감각에 호소하는 ‘형상’이다. 달리 말해, 화행은 어휘 또는 언어 기호를 통해 명시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준-언어 기호 또는 비-언어 기호와 더불어 원초적으로, 복합적으로,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수행된다. 결국 화행은 그 표현면에 있어서도 내용면에 있어서도 복합적이다. 바로 이 때문에 화행의 수행, 해석, 교환에 한편으로는 갈등과 전략이 따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주관적(또는 상호 주체적) 협상과 합의가 요청된다.

화행론의 창시자로 공인되는 오스틴 J. L. Austin도 화행의 원초성을 강조하기는 했다. 그의 결정적인 한계는 영어 중심적인 관찰을 토대로, 수행동사, 수행문, 수행구 등등을 통해 화행이 명시적으로 수행되는 사례가 많다고 전제하고, 심지어 명시적 화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당 언어권의 문명화의 척도가 된다고 여겼다는 데 있다(1970, 92~93 참조). 하지만 상호 주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른바 문명화된 언어권에 있어서도 화행은 거의 전적으로 원초적 양상 아래 수행된다. 그리고 명시적 화행은 그야말로 예외에 속한다. 사실 오스틴 이후 분석철학 일상언어학파의 화행 인식에는 은연중에 문명/원시라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⁵⁾

5) ‘수행문’에 대한 오스틴의 정의를 존중하는 선에서 관찰하면, 영어에 비해 한국어에 있어 명시적 화행의 빈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어 특유의 통사 구조에 결부시켜 이해해야 하는 차이점에 불과하다. 그가 ‘수행문’의 준거로 제시한 ‘수행동사’의 ‘1인칭’ — ‘단수’ — ‘현재’ — ‘직설법’ — ‘능동태’ 용법이, 일상 언어에서 주어가 거의 생략되고 수동문이 거의 쓰이지 않는 한국어에 어떻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는가! 사실 한국 사회의 실제 언어 생활에서 ‘나는 너에게 꼭 갈 것을 약속해’와 같은 식의 어법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이다.

필자가 볼 때 “그래, 꼭 같게. 약속해/약속할게/이것 약속이야*”와 같은 언표처럼 얼핏 보아 명시적 화행(‘약속’)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실제로 있어서는, 앞서 수행된 원초적 화행(‘약속’)을 특칭하여 강조하거나(‘확약(確約)’), 아니면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성격의 원초적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여기서는 예를 들어 ‘달래기’ ‘안심시키기’ 등등). 다른 예를 들어, “당장 가서 그를 좀 만나줘, 부탁해(/부탁할게/이것 부탁이야)*” “부탁하는데(/이것 부탁인데), 당장 가서 그를 좀 만나줘*”와 같은 언표들이 있다고 하자.⁶⁾ 이때도 ‘부탁’이라는 명시적 표현은, 그 자체로서 ‘부탁’이라는 화행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청’ ‘애원’에 가까운 또 다른 원초적 화행의 수행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지적했듯이, 화행 표현면에는 다기한 성격의 기호들이 동시에 가담하고 그것들이 다차원적으로 화행의 성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자네, 내일 제주도에 가게 돼*”와 같은 동일한 언표도, 거기에 부여된 다기한 표현상의 ‘형상’에 따라, ‘알림’ ‘경고’ ‘약속’ ‘위협’ ‘연민’ ‘비난’ ‘축하’ 등등에 가까운 전혀 다른 화행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화행 내용면은 일부 학자들이 아예 ‘혼합물 *amalgam*’이라고 할 정도로 더욱 복잡적이다.⁷⁾ 화행의 범주화 시도가 실패로 끝나거나 항상 비판의 여지를 남기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

6) 이 논문에서는, 구두점이 화행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언표에 * 표시가 사용될 것이다.

7) 화행이 거시/미시의 연속선상에서 수행된다는 것도 화행에 담긴 복잡성의 또 다른 일면이다. 사실 여러 유형의 화행들이 상대적 위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언어적 상호 작용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상호 명제적 성격의 논증 화행들이나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 표명과 같은 것들이 가장 낮은 층위의 미시화행들로 작용하는 가운데, ‘제안’ ‘충고’ ‘권유’와 같은 미시화행이 수행될 수 있고, 다시 이것들을 포괄하는 식으로 ‘설득’ ‘부탁’ ‘불만 토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토론·논쟁·협상·회의 등등은 절대적 성격의 거시화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고 이 복합성이 한편으로는 청자의 반응에, 다른 한편으로는 전달 화법에 그대로 연장된다. 사실 한 언표에 내포된 화행은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반응 가능태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의 사후 전달 가능태들에 비추어 상정해볼 수 있는 행위들의 총화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자면, 현장 화행의 원초성과 복합성을 해명하는 데 있어 청자의 반응과 전달화법의 관찰이 우회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⁸⁾

요컨대 이 모든 것이 상호 주관성에 비추어 설명될 수 있고 또 상호 주관성을 재확인해준다. 화자가 언표를 발화함과 동시에 복합적인 지표들을 통해 복합적인 화행이 수행된다. 화자가 언표에 부여한 화행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청자의 반응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른 한편, 화자에 의해 수행된 화행이 어쨌든 원초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언표상의 지표들이 청자의 반응을 완전히 구속할 수도 없다. 그리고 화행의 전달에 있어서도 전달자까지와 유사한 자유/구속의 연속선상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전달화법 자체가 전달 대상 언표와 더불어 구성하는 새로운 언표와 그것을 통해 수행되는 새로운 화행에 관련해서도, 위와 똑같은 양상이 되풀이된다(4. II. 참조).

이와 같은 모든 양상이 바로 언어적 상호 작용에 있어 화자와 청자, 언표화 과정과 해석 과정, 전달 대상 언표와 전달자, 그리고 더욱 높은 층위에서는 현실과 담론, 사회와 개인간에 관여하는 상호 주관성의 중첩 현상을 반영한다.

II. 화행의 제도장, 어휘장, 행위장

이렇게 볼 때 화행은 제도장/어휘장/행위장에 따라 달리 인식되

8) Stati(1990, 28~29)의 경우 화행에 관련하여 우회적인 접근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그 우회적 수단들로서 1) 화행명을 지닌 절 또는 표현, 2) 통사 구문, 3) 문장 내용, 4) 상대방의 반응, 5) 자극 대꾸, 6) 상투어법을 들고 있다.

어야 한다. 기존 화행론은 화행의 행위장을 단순히 논리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취급한 채, 화행의 제도장과 어휘장에 치중하거나 적어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학자들이 화행이 명시적으로 수행되는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있어 그 사례들은 예외에 속할 뿐이다. 화행을 제도장/어휘장/행위장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경우 그 예외성이 자명하게 드러난다. 제도장을 공공성/일상성에 근거하여 구분할 때 공공 제도적 성격의 극소수 화행들,⁹⁾ 그리고 의례적 성격의 일부 화행들이 명시적으로 수행되기는 한다.¹⁰⁾ 그러나 이것들은 높은 등급의 사회 제도성에 의존하는 일방적 성격의 집행 또는 의례에 해당할 뿐, 일반적 상호 작용 단위로서의 화행으로 간주될 수 없다.

오스틴 이후 1인칭—단수—직설법—현재—능동태로 쓰인 수행 동사들과 더불어 특정 화행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온 수행문들이 그 자체로서 과연 거기에 상응하는 화행을 구성하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물론 화행을 가리키는 어휘들의 장(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선 주목할 것은, 그 어휘장이 일상적 상호 작용에서 원초적으로 수행되는 화행의 행위장을 대변하기에는 어렵도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는 점이다. 더욱 주

9) 사회 제도상으로 법률 제도상의 '선고' '구형,' 정치 제도상의 '동의' '제청' '선포,' (개회, 폐회, 유회) '선언,' 종교 제도상의 '기도' '축성' '세례' '파문,' 과학 제도상의 '보고' '진술' '가정' '예증,' 군대 제도상의 '명령'과 같은 행위들이 명시적으로 실행되기는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도된 화행 범주화 시도가 대부분 이와 같은 '제도장'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화행에 관련하여 흔히 거론되고 있는 고발, 변론, 파기, 심문, 평결, 증언, 인가, 허가, 체결, 발언권 부여/취소, 결론, 기술, 입증, 전제, 주장, 기원, 설교, 고해, 지휘, 지령, 진단, 처방과 같은 행위들마저도 대개는 일방적인 서면 통보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10) "축하합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소개합니다" 등등. 이것들은 비교적 높은 등급의 의례성(일상 제도성)과 일방성을 띠고 있으며, 그 극단적인 예가 결혼 주례의 성혼 '선언'과 운동 선수들의 '선서'와 같은 것들이다.

목할 것은, 그 어휘장이 화행 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행의 특징, 요청, 예고, 환기, 대질, 전달 등등에 쓰인다는 점이다(4. I. 참조).

화행의 어휘장이 그 행위장에 비해 극도로 빈약하다는 것은 화행의 사후 전달 양상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사실 문학 텍스트에서는 물론 일상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화행의 사후 전달에 각양각색의 수식과 문체가 동원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신신당부’ ‘애걸복걸’ ‘손발이 닳도록’ 등등과 같은 굳어진 표현들은 ‘부탁’에 가깝기는 하지만 재현 불가능한 화행 복합체의 내용면을 ‘형상화’하는 수단으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전달화법에 ‘~라고 했다’ ‘~라더라’라는 식의 중성적인 대동사(代動詞)나 인용 어미가 자주 쓰인달지, 이른바 자유직접화법이나 자유간접화법에서는 형식적 도입부 없이 대개 언표만 전달된다는 사실도 화행이 결국 상호 주관성에 맡겨진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요컨대 화행의 내용면은 단순히 명제 또는 언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다원적으로 결정된다. 각종 상황 요인들과 사회 제도들이 교차하는가 하면, 정태적인 대인 관계와 더불어 미시-동태적인 대인성이 작용하고, 심지어는 정신 분석 특히 최근의 교행 분석에서 말하는 복합 자아가 개입하기도 한다. 언표 수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준-언어 기호적으로 어떤 휴지, 어떤 강세, 어떤 억양을, 그리고 비-언어 기호적으로 발화자측의 어떤 표정, 어떤 자세, 어떤 동작을 수반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통해 수행되는 화행의 내용면이 지극히 가변적일 수 있다. 나아가서 명제에 내포된 극성(劇性) 등급에 따라 화행 내용면이 크게 좌우될 수도 있다.¹¹⁾

11) 필자가 생각하는 명제의 ‘극성(劇性)’ 등급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척 복잡하다. 대충 열거하자면 사행체들의 수, 사행체들의 본포, 사행 동작주들의 대인 관계, 사행 성격, 사행 무대, 명제의 진리치, 동사 유형, 동사 시제, 인칭 등등

화행의 어휘장 자체에서 은유적 성격의 상호 제도적 침투 현상을 엿볼 수 있다. 공공체와 일상체간에, 공공 제도들간에, 나아가서 일상적 성격의 행위들간에, 특정 어휘들의 침투 현상이 엿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언’이 공공 제도들 아닌 일상적 수준의 화행을 가리키는 데 쓰이기도 한다. 심지어 ‘세레’라는 어휘마저도 종교적 테두리를 벗어나 일상 생활의 특정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 한편 아주 높은 등급의 사회 제도성을 띠는 화행들마저도 다의적으로 (또는 함축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¹²⁾

따라서 상호 작용의 기본 단위인 화행의 교환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선형적인 규칙이 있을 수 없고, 화행의 행위장을 명시하거나 재현할 수 있는 어휘장이 있을 수 없다. 앞서 몇몇 대목에서 암시한 상호 제도성, 대인성, 복합 자아성과 더불어, 상호 주관성이야말로 화행의 실질적인 토대임과 동시에 화행의 본질을 해명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개념이다.

4. 화행 전달과 전달화법

화행이 명시되는 사례들을 보면 그것들간에 연속성이 있음을 알

에 의해 결정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나(/너/재) 지금 학교에 갔다 (/사람을 치고) 오는 길이야*” “내(네/개)가 동창회 석상에서(/군대 있을 때) 이선배 뺨을 후려갈겼다며*”와 같은 언표들에서 방금 언급한 요인들의 분포에 따라 명제에 담긴 ‘극성’ 등급이 현저하게 달라진다. 이에 관련해서는 필자의 논문 “Modes du rapport illocutoire” (서울대학교, pp. 92~96) 참조.

- 12) 협상적 성격의 상호 주관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너는 간호사 해, 나는 의사 할게” 하는 식으로 각기 대인적 계약을 맺는 양상이다. 성인들이 오락 또는 농담삼아 공공 제도적 성격의 화행을 주고받는 것도 상호 작용 현장의 상호 주관성을 반영한다. 요컨대 일상적 상호 작용의 수준에서는 상호 주관적 합의 아래 누구나 ‘선언’이나 ‘세레’를 할 수 있고, 역시 상호 주관적 해석 아래 누구나 ‘선언’이나 ‘세레’를 한 것으로 전달될 수 있다.

수 있다. 그리고 언어 기호들을 통해 화행을 어떤 양상으로든 명시화하거나 형상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달화법이다. 언표에 못지않게 화행도 ‘전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식 아래 화행의 수행과 전달을 연관시켜 고찰함으로써, 화행, 전달화법, 문학 서술에 두루 걸치는 상호 보완적 효과는 물론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관련되는 학제적(學際的)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 화행 명시의 사례들

어떤 경우에 화행이 어휘적으로 명시되는가?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그것은 화행을 특칭, 요청, 예고, 대질, 환기, 전달, (서술)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유의할 것은, 이 같은 사례들에 속하는 모든 언표들도, 그것들이 명시화 또는 형상화하는 대상 언표와는 별도로, 그 자체의 원초적 화행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1) 화행 특칭: 오스틴 J. L. Austin 이후 화행론에 일반화된 이른바 ‘수행문’ 또는 ‘수행구’의 화행 명시는, 필자가 보기에, 화행의 특칭에 해당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3. I. 참조) 화행 특칭은 특정의 원초적 화행을 강조하는 데 쓰이거나, 그 자체로서 또 다른 성격의 원초적 화행을 수행한다.

2) 화행 요청: 특정 화행이 요청될 수 있다. “개한테 좀 물어봐줘*” “꼭 오겠다고 약속해줘*” “용서해주세요*” “애,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야지*” 하는 식으로. 유의할 것은, 방금 제시된 실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화행의 요청 자체가 원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3) 화행 예고: 특정 화행이 예고될 수 있다. “그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할지도 몰라 애*” “아무래도 그를 다시 만나면 그 일을 실토해야 할까봐*” 하는 식으로, 이와 같은 언표들은 명백히 또 다른 원초적 화행을 수행한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화행 예고가 앞서 다른 화행 특칭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연속 선상에 놓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여쭙보겠는데요, 인문대가 어느 쪽인가요*” “부탁할 게 있는데, 들어올 때 봉어빵 몇 개만 사다줘*” 등등.¹³⁾ 그런데 이 경우에 명시적으로 예고된 화행들(‘질문’ ‘부탁’)도, 실제에 있어서는, 언표 나머지 부분의 각종 지표들에 의해 원초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4) 화행 대질: 화자가 수행했다고 간주되는 수행을 청자가 문제삼는 양상으로 화행이 명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변명하지 마*” “야 임마, 그게 어디 부탁하는 거냐, 꼭 공갈치는 것 같다야*” “네가 제아무리 애걸복걸해보았자 나로선 속수무책이야*” “자, 그렇게 비난만 늘어놓지 말고 뭔가 대안 제시를 해보세요*” 등등. 여기에서도 물론 별도의 원초적 화행이 작용한다. 이와 같은 화행 대질은 청자 중심적이라는 점에서 화행의 또 다른 복잡성, 상호 주관성을 드러낸다.

5) 화행 환기: 특정 화행이 사후 환기 양상으로 명시될 수 있다. 이때 명시되는 화행은 화자 자신이 수행했던 것이거나(“꼭 좀 해달라고 입이 닳도록 부탁드렸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충고했니*”), 청자가 수행한 것이거나(“오기로 약속했잖아*” “너도 동의했잖아*”), 제3자가 수행한 것일 수 있다(“어디 개 그런 불평 한두 번이니*”).¹⁴⁾

13) 다른 관점에서나마 장석진(1987: 313)도 비슷한 언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나 부탁하는데, 이달말까지만 기다려줘”; “부탁해, 이달말까지만 기다려줘”; “(이전 내) 부탁인데, 이달말까지만 기다려줘.”

14) 화행 환기에 해당하는 이 실례들은, 필자가 나중에 제시할 분류법에 따르자면,

이때도 물론 별도의 원초적 화행이 작용한다. 그리고 화행 ‘환기’는 다음에 다룰 화행 ‘전달’과 화행 ‘서술’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6) 화행 전달: 화행 전달도 이와 같은 화행 명시 사례들, 특히 화행 ‘환기’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선생이 꼭 읽어보라고 권하던 그 책 있잖아, 이선배는 별것 아니라던데 뭐*” “엄마 예언대로라면 나는 첫 아기가 딸일 거라는데 남편은 꼭 아들이어야 한대*” “왜 그렇게 늦게 왔느냐고 따졌더니, 글썄, 그 건 알아 뉘려려느냐고 되려 강짜더라니까*” “으휴, 어제는 그렇게 찬사를 늘어놓더니 오늘은 아예 저주를 퍼붓더구먼*” 등등. 이 경우들에 있어서도 별도의 원초적 화행이 수행된다. 한편 방금 제시된 사례들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화행 전달이 특정 어휘에 의존하여 명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7) 전달화법: 화행 전달은 결국 다기한 양상의 전달화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전달화법은 우선 구어/문어에 따라 상당 정도 다른 메커니즘에 의존하게 된다. 대상 언표와 대상 화행의 전달에 있어, 구어에서는 각종 준-언어 기호 또는 비-언어 기호가 동원될 수 있는 반면에, 문어의 경우 철두철미하게 언어 기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바로 이 때문에 전달화법이 문어 특히 문학 언어에서 더 발달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며, 역시 바로 이 때문에 전달화법 연구가 전통적으로 문어(특히 소설 텍스트) 위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달화법을 문어의 전유물로 여기는 태도까지 옳은 것은 아니다.¹⁵⁾

대개 ‘화행 중심’의 ‘서사적’ 전달화법에 속한다.

- 15)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의 “절반은 남의 말”(M. Bakhtine)일 정도로,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언어 활동에 있어 전달화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어 전달화법에 관련하여 문학 텍스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른바 자

8) 문학 서술: 화행 중심의 전달화법에 대한 고찰이 다시 문학 서술의 문제로 연장될 수 있다. 사실 문학 서술은 대상 화행 고유의 원초성, 복합성, 상호 주관성을 철저히 언어 기호들에 의존하여 전달해야 하는, 숙명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한편 일상 전달화법에서는 전달 언표 그 자체에 전달 대상 화행과는 별도의 새로운 원초적 화행이 각양각색으로 실리는 반면에, 문학 서술에 있어서는 전달 언표 자체의 화행은 문자 그대로 '전달' 또는 '서술'로 중성화된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전달 대상 화행의 속성을 언어 기호들을 통해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각양각색의 형상화가 시도된다.

바로 이 때문에, 한편으로는 문학 서술에 대한 관찰이 화행 연구의 우회적 수단이 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행 전달 양상으로서의 전달화법이 문학 서술 연구의 핵심 주제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저의 '영향미학'과 유사한 성격의 문학 화용론이 이 연장선에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¹⁶⁾

문학 언어를 통해 이와 같이 '우회적으로' 화행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역설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의 의식에 사회적 동의의 형태로 내재함과 동시에 사회적 상호 작용 현장에서 상호 주관적(또는 상호 주체적) 협상의 양상 아래 동태적으로 작동하는, 화행 관련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문학 언어를 통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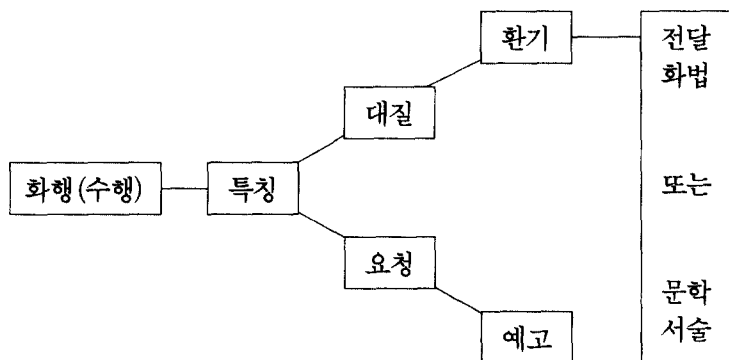
유간접화법이 일상 화화에도 자주 나타난다는 주장이 최근에야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시사적이다(D. Maingueneau, 1991, pp. 95~101 참조).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한국어 전달화법의 경우 문학 언어/일상 언어에 따른 분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전달화법을 문학 언어의 전유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한국어 일상 언어에서도 문학 언어에 못지 않은 다기한 전달화법들이 문학 언어에서와 똑같은 원리에 의해 쓰이고 있다.

16) 이 점에 관련해서는 필자의 논문 「화용론의 문학 이론적 성과」(『현대 비평과 이론』 제7호, pp. 55~74) 참조.

의 생각이다.¹⁷⁾

지금까지 거론된 화행 명시의 사례들에서 일정 연속성이 드러나며, 그 연속성을 대략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Ⅱ. 화행 전달의 유형들

바흐친이 주장하듯이 우리가 하는 말의 “절반은 남의 말”이다. 이 주장은 필자가 보기에 두 갈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우리가 언어적 상호 작용에서 교환하는 언표 및 화행이 전달화법 양상으로 부단히 전달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둘째는 언어적 상호 작용을 통해 우리의 ‘의식’이 상호 침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

17) 이에 관련하여 Hall(1971)의 주장을 인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는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 「지각의 열석로서의 문학」이라는 단원에서 인간의 ‘공간 감각’을 구명하기 위해 문학 텍스트에 의존하는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 텍스트들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작품을 즐기 위해서나 주제 또는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가가 독자에게 자기 자신의 ‘공간 감각’을 구축하도록 제공하는 메시지의 기본 성분들이 무엇인지를 확정한다는 뚜렷한 목적 의식에서였다.”

리고 이 두 해석이 모두 상호 제도성, 상호 텍스트성, 상호 담화성, 다성성, 그리고 상호 주관성에 직결된다. 사실 화행의 수행과 전달을 연관시켜 고찰하면 거기에서 대칭성이 발견되고, 그 대칭성의 가장 큰 부분이 상호 주관성인 것으로 드러난다. 요컨대 전달화법도 전달 대상인 화행의 속성, 즉 상호 주관성에 상응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달화법의 비중이 이토록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주의 및 변형생성문법 계통의 이론들에서는 이것이 별다른 관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변형생성문법에서는 기껏해야 보문 구조로 설명되고 있을 뿐이고, 전통 문법이나 문체론에서 제시해온 전달화법 유형론도 지나치게 축소 지향적이다. 직접화법/간접화법에 이어 비교적 최근에는 자유직접화법/자유간접화법이라는 구분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기서 직접성/간접성의 대립은 전달 대상 언표의 문법적 변형의 유무에, (종속)/자유의 대립 역시 문법적 형식의 도입부의 유무에 근거할 뿐이다. 이처럼 단순한 대립 구도와 준거틀이 전달화법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대변하기에는 어림도 없다.

기존의 전달화법 유형론이 안고 있는 더욱 큰 한계는 거기에 화행 전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명제와 문법 형식 중심의 기존의 전달화법 분류법을 수용하기는 하되, 그것을 화행 중심의 새로운 관점과 좀더 다차원적인 준거틀 아래 좀더 다차원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기준들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준거틀로 제시될 일부 기준들은 불연속적이 아니라 연속선상의 대립을 전제한다.

1) 구어/문어에 있어서의 전달

‘I’의 7) 전달화법’ 참조.

2) 언표/명제/화행 중심 전달

‘언표’ 중심 전달의 경우, 구어/문어 구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어 직접화법에서는, 준-언어 기호, 비-언어 기호를 포함한 언표의 전달이 흔히 모방된다. 그리고 구어의 다른 전달화법 유형들에 있어서도 대상 언표의 특정 부분이 모방될 수 있다. 한편 문어 전달화법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때로는 도입부에 각종 묘사가 동원되고 때로는 특정 부분에 구두점이 사용되기도 한다.

간접화법은 ‘명제’ 중심 전달에 속한다. 간접화법에서는 대상 언표의 표현면이 문법적으로 재구된 것은 물론, 내용면도 대개는 개념적으로 재구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화행’ 중심 전달도 자주 목격된다(예를 들어, “개가 막 비난을 퍼붓더라” “바로 그때 기막힌 제안이 나온 거야” 등등). 전달화법이 화행 중심성을 띠는 경우 서사화(또는 사전화) 등급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¹⁸⁾

3) 화행자/화행/화행 상대 중심 전달

화행 부문만 놓고 볼 때도, 화행자, 화행, 화행 상대 중 어느 한 쪽에 전달의 초점이 두어질 수 있다. “니 요즘 돈 좀 만진다카대”와 같은 경우, 우선 명제 중심 전달에 해당하는데, 화행 부문에 관련해서는 ‘화행자’나 ‘화행 상대’가 드러나 있지 않고 ‘화행’도 지극히 원초적인 상태로 전달되고 있다. 쉽게 말해 이것은 ‘요즈음 네 돈벌이가 괜찮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라’는 식의 애매한 전달에 속하는 것이다. 결국 대상 언표에 대한 전달자의 해석 및 전

18) 전반적으로 볼 때, 전달화법의 양상이 언표/명제/화행 중심으로 나아감에 따라 사전화 또는 서사화 등급이 높아진다. 이렇게 서사화 등급이 높아지는 전달화법을 가리켜 G. Genette는 ‘discours narrativisé(서술화된 담화)’라는 말을 썼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모든 전달화법이 이미 ‘서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P. Hamon의 노선에서 ‘서술’을 ‘서사’/‘묘사’로 나누어 인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4. II. 5) 및 주 20) 참조).

달 의도에 따라 이와 같은 유형 차이가 생길 것이고, 그 결과 전달 화법의 문형(능동태/수동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¹⁹⁾

4) 원초적/명시적 화행 전달

화행 전달은 원초적/명시적 대립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다. 우선 구어/문어 구분에 있어, 원초적 화행 전달에는 문어 전달화법에 비해 구어 전달화법이 더 유리하다. 전달자측에서 준-언어 기호, 비-언어 기호를 포함한 대상 언표를 상당 정도 모방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모방된 대상 언표에 의해 대상 화행 자체가 어느 정도 형상화되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거꾸로, 구어 전달화법에 비해 문어 전달화법에서 더욱 높은 화행 명시성이 요청될 것이다.²⁰⁾

그렇다고 해서 구어/문어 구분이 화행 전달의 원초성/명시성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놓이지는 않는다. 전달화법 전반적으로 볼 때, 대상 화행이 특정 어휘로 명시되는 경우는 차라리 예외에 속

19) 한국어에 있어서도 화행 전달이 수동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나 오늘 초대받았다*” “실컷 야단만 맞았네*.” 여기에 제시된 사례들의 경우, 화행자는 드러나 있지 않은 반면에, 화행은 각기 ‘초대’ ‘야단’이라는 어휘를 통해 높은 등급으로 명시되어 있다.

20) 한국어에 있어 전달화법 도입부에 쓰이는 대동사들이 순수 한국어인 반면에, 장석진(1985)이 제시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화행 명시어들은 거의 한자 차용어라는 점이 시사적이다. 발생론적으로 볼 때 이 화행 명시어들은 문어 위주의 전달 화법을 위해 차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편 장석진(1987: 319)은 한국어 화법에 관련하여, 인용문 동사 어미 ‘~(하)라고’와 ‘~(하)자고’에 따라 화법 도입 동사의 분포에 차이가 난다고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차이가 서구어에서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명령’ 범주와 ‘제안’ 범주가 서로 다른 형태-통사론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 자료에서 * 표시는 비문법성 또는 비수용성을 가리킨다.)

- 1) 내일 가라고 명령했다/지시했다/요청했다/권했다/*제청했다/*제안했다.
- 2) 내일 가자고 *명령했다/*지시했다/요청했다/권했다/제청했다/제안했다.

할 정도이다. “준호가 그러는데, 개 동생 또 떨어졌단다*” “준호가 그러데, 너 요즘 컴퓨터 배운다고*” 등등에서처럼, 전달화법 도입부에 중성적인 성격의 대동사(代動詞)와 인용 어미가 자주 쓰인달지, 대부분의 다른 도입 동사들도 대상 화행에 관련하여 중성적 또는 상위 개념적이라는 사실도 화행 전달에 있어 원초성이 불가피함을 대변한다.

문학 텍스트에 있어서는 전달화법 도입부 형식으로 각종 수식과 문체가 동원되는 일이 빈번하다. 일상 언어 활동에서도 종종 장황한 묘사 형식의 화행 전달이 목격된다. 물론 이것은 복합적인 성격의 대상 화행을 되도록 충실하게 형상화하여 전달하려는 전달자(또는 작가)측의 의지에 기인한다.

5) 서사적/묘사적 화행 전달

화행 전달의 양상에 서사/묘사의 대립 구도를 설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전달화법상의 ‘전달’과 문학 서술상의 ‘서술’이 동렬에 놓이고, ‘서사’/‘묘사’가 그 하위 개념으로 간주될 것이다.²¹⁾ 화행 전달에 국한시켜 말하자면, 소설 텍스트의 상당 부문이 등장인물들간에 교환되는 화행 복합체들의 서술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명시화된 화행들이 ‘서사’ 서술을 형성하는 가운데, 명시도가 낮거나 극도로 원초적으로 ‘묘사’된 또 다른 화행들이 그 서술을 에워싸며, 그 결과 화행 복합체들의 문학적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21) 이에 관련하여 서사/묘사를 구분하여 묘사를 서사에 종속시키는 전통적 관점을 수정해야 한다는 P. Hamon(1981)의 주장이 시사적이다. 그에 의하면 현대의 문학 텍스트에서는 갈수록 ‘묘사’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

한편 료타르가 자신의 사회철학적 관점에서 대서사/소서사의 대립을 설정하여 ‘소서사’의 복권을 주장하는 태도와, 이 논문에서 필자가 화행 전달에 관련하여 서사/묘사의 대립을 설정하고 ‘묘사’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태도 사이에, ‘상호 주관성’에 토대한 일종의 동형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나아가서 이렇게 형성된 텍스트를 상대로 상호 주관적 독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설 텍스트에서 직접화법으로 전달된 언표 그 자체는 서사보다 오히려 묘사에 가담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연극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의 나열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주 11) 참조), 사행체들의 수, 사행체들의 분포, 사행 동작주들의 대인 관계, 사행 성격, 사행 무대, 명제의 진리치 등등에 의해 결정되는 명제의 극성(劇性) 등급이 화행 내용면의 구성 성분이라는 점에서, 바로 이 요소들이 화행의 원초적 묘사 성분들로 간주될 수 있다. 나아가서, 각종 구두점과 인용 부호 등등도 그 시각적 효과와 더불어 거기에 합류하는 셈이다.

6) 포괄적/국부적 화행 전달

앞에서 지적했듯이 화행이 미시/거시의 연속선상에 놓인다는 점도 화행의 복합성의 한 단면이다(주 7) 참조). 그리고 예를 들어 '제안'과 같은 동일한 개념의 화행이 때로는 미시화행으로서 때로는 거시화행으로서 수행되기도 한다. 화행 전달 또한 화행의 이 같은 속성을 반영하는 양상을 띠며, 그 결과 때로는 국부적으로 때로는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 피전달자의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마치 주먹질, 화살, 탄환처럼 교환되는 미시화행들의 사슬에 접하게 되고, 때로는 상호 작용의 한 대목 또는 전체를 가리키는 거시화행에 접하게 된다.

7) 긍정형/부정형 화행 전달

전달 대상이 되는 화행은 원칙상 실제로 수행되었거나 수행되었다고 간주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결과 화행 전달 또한 대개는 긍정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화행 전달이 부정문 또는 그 상당 어구에 의해 이루어질 때도 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

실이다. 거기에서 화자(또는 화행 수행의 당사자) 아닌 청자(또는 화행의 사후 전달자) 중심의 독특한 상호 주관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비실현된 화행이 이렇게 행위성을 부여받는 데는 크게 두 유형이 있다. 우선 특정 핵화행의 원초성과 복합성을 수식하는 양상으로 부정형 화행이 전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무 이의 없이 선티 동의해주더라*” “한마디 인사치레도 없이 불쑥 따지고 들더라”와 같은 전달에서, 부정형 화행 ‘이의 제기 없음’ (‘인사치레 없음’)이 ‘선티’ (‘불쑥’)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여기에서 전달되고 있는 ‘동의’ (‘따짐’)라는 핵화행이 애초의 수행 단계에서 지니고 있었을 그 원초성과 복합성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

한편 둘째 유형의 부정형 화행은 좀더 적극적인 행위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청자(또는 전달자)가, 자기 나름의 기대 지평에 의거하여, 특징인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 화행을 수행하지 않는(않은) 것 자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뚝밖에도 그쪽에서는 아무 제안도 없었어*” “내가 그렇게 들이대니까 대꾸를 못 하더라고 글썄*” 등등. 나아가서, “찬성도 반대도 않더라”는 식의 2항 부정에 가까운 부정형 화행의 전달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상호 작용 현장에서 수행되는 화행의 성격과 화행 교환 및 전달에 개입하는 상호 주관성의 측면을 잘 드러내준다.²²⁾

지금까지 다룬 화행 전달의 여러 유형들과 더불어 다기한 전달 화법을 구사하는 것이 언어 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특히 소설을 비롯한 문학 서술상의 상당 부문이 새로운 전달화법

22) ‘농담 반 진담 반’과 같은 어법도 화행의 복합성을 시사한다. “그(최형우 사무총장)는 이어 다른 의원들을 겨냥,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재산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의심이 증폭될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면 나로부터라도 하겠다’고 ‘협박 반(半) 촉구 반(半)’”(동아일보, 1993. 3. 6, p. 4).

의 개발을 추구하는 양상을 띤다.

5. 결 론

화행은 언어 활동의 ‘숨겨진 차원’에 속한다. 화행의 원초성에 연유한 애매성, 불투명성, 비논리성은 인간이 로봇화되지 않고 더 붙어 살 수 있도록 마련된 기호 체계상의 여백이다. 언어 현상에 관련하여 투명성의 신화, 논리주의, 객관주의에 집착하는 경우 이 여백을 언어의 결정적인 취약점, 나아가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행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한편 이 여백을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애매성의 신화, 논리 기피주의, 주관주의에도 그 나름의 한계가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인문사회과학 여러 분야들에서, 그리고 대개는 이른바 ‘좌파’로 분류되는 노선에서,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상호 주관주의적 관점이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상호 주관성 개념에 이데올로기성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상호 주관주의가 대상 인식 및 접근 방법에 있어 객관적 설득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 이루어진 관찰에 의하면, 화행, 전달화법, 문학 서술에 대칭성이 발견되고 그 대칭성의 핵심이 상호 주관성인 것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화행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현장 화행의 본질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더러, 전달화법 및 문학 서술에 대한 연구로 연장될 수 있다.²³⁾ 그리고 전달화법 및 문학 서술에 대한 미시적인 관찰을 화행 연구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23) 필자는 이 같은 노선에서 이루어진 그 동안의 작업을 ‘붙어 전달화법 도입부 연구’ ‘화행, 전달화법, 문학 서술’ ‘한국어 전달화법 연구’라는 주제 아래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필자는 화행 전달에 대한 연구가 좀더 높은 수준에서 학제적(學際的)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인문사회과학 다른 분야들이 거시적 수준에서 다소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호 주관성 문제가 화행 연구를 통해서도 더욱 미시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연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아래로는 음운이나 형태소 같은 순수 언어학적 단위들에까지 상호 주관주의적 접근을 확대시킬 수 있고, 위로는 상호 주관성을 존중하는 인간상, 사회상, 미래상을 제시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전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참 고 문 헌

-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바흐친의 문학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8.
 ———,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현암사, 1992.
 張奭鎭, 『話用論研究』, 탑출판사, 1985.
 ———, 「韓國語 話行動詞의 分析和 分類」, 『語學研究』 제23권 3호, 1987, pp. 307~39.
 Austin, J. L., *Quand dire, c'est faire*, Paris: Seuil, 1970/1962.
 Bakhtine, M., *Le Marxisme et la philosophie du langage*, Paris: Minuit, 1977/1929.
 ———, *Esthétique et théorie du roman*, Paris: Gallimard, 1978.
 ———, 『장편소설과 민중 언어』(전승희 외 역), 창작과비평사, 1988.
 ———, 『문학사회학과 대화 이론』(최현무 역), 까치, 1988.
 Bateson G. et al., *La nouvelle communication*, Paris: Seuil, 1981.
 Best, S. et Douglas, K., *Postmodern Theory, Critical Interrogation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1.
 Goffman, E., *La Mise en scène de la vie quotidienne: I. La Présentation*

- de soi ; II. *Les Relations en public*, Paris: Minuit, 1973.
- , *Les Rites d'interaction*, Paris: Minuit, 1974.
- , *Les Façons de parler*, Paris: Minuit, 1987.
- , *Les Cadres de l'expérience*, Paris: Minuit, 1991.
- Hall, E. T., *Le Langage silencieux*, Paris: Mame, 1966.
- , *La Dimension cachée*, Paris: Seuil, 1971.
- Hamon, P., *Introduction à l'analyse du descriptif*, Paris: Hachette, 1981.
- Hudson, R. A., 『社會言語學』(崔鉉郁, 李元國 옮김), 한신문화사, 1986.
- Hymes, D., *Vers la compétence de la communication*, Paris: Hatier-Crédif, 1984.
- Iser, W., 『독서 행위』, 이유선 역, 신원문화사, 1993.
- Kerbrat-Orecchioni, C., *Interactions verbales* I, II, Paris: Armand Colin, 1990/1991.
- Lips, M., *Le style indirect libre*, Paris: Payot, 1926.
- Lytard, J.-F., *Discours, figure*, Paris: Klincksieck, 1971.
- Marc, E. et Picard, D., *L'interaction sociale*, Paris: P.U.F., 1989.
- Maingueneau, D., *Genèses du discours*, Bruxelles: Perre Mardage, 1984.
- , *Eléments de linguistique pour le texte littéraire*, Paris: Bordans, 1990.
- , *Pragmatique pour le discours littéraire*, Paris: Bordas, 1990.
- Stati, S., *Le transphrastique*, Paris: P.U.F., 1990.